



벤처기업의 세계진출, 글로벌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 2월

- ★ INKE 태국 방콕지부 설립
- ★ INKE 일본 동경지부 설립
- ★ 일본 미야자키현 산업조사단 파견
-미야자키현내 산업시설 및 환경 조사

○ 3월

- ★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파견지역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견규모 : 10개 기업 및 회장단 등 총 33명
-현지기업인 : 3개국 200여 명
- ★ KOVA-PIKOM(벤처기업협회-말레이시아 컴퓨터멀티미디어 산업협회) 업무협약
-단체 회원간 교류

○ 4월

- ★ INKE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 설립
- ★ INKE 미국 L.A. 지부 설립
- ★ 한미인(독일)비즈니스센터 설명회 개최
-참가규모 : 국내 벤처기업 30여 개사
- ★ 일본 시마네현 산업조사단 파견
-시마네현내 산업시설 및 환경 조사

○ 5월

- ★ 라스베이거스 넷월드 인터럽 전시회
-파견지역 : 미국 라스베이거스
-파견규모 : 10개기업 20여명
-참관객 30,000여 명, 바이어 10,000여 명
- ★ INKE SPRING 2004, L.A.
-파견지역 : 미국 엘바인
-파견규모 : 18개사 36명
-현지 참가규모 : 50개사 80여 명
-제8차 INKE 정기 이사회
-벤처기업-워너브라더스간 협력채널 구축
- ★ 전략세미나 1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협력모델 구축
-참가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및 벤처 기업CEO 70여 명

INKE 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 | 전세계 한인 벤처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현재 18개 지부가 활동 중이며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한인 벤처인들 간의 협력모델

Global



KT 본사 구매전략실 사업협력부 서철성 차장
Venture Korea 2004 : Triangle-Net 참가

대기업-벤처기업 상담회 프로그램인 Triangle-Net 참석을 통해 KT의 사업 협력 필요성과 중소·벤처기업과의 사업협력의 의미를 돌아보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서로간 win-win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장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공유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2005년에도 벤처기업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소테크 해외영업팀 김도봉 과장
Venture Korea 2004 : Triangle-Net 참가

2004년 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후, 협회 행사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행사가 있어서 참가하게 되었구요. 벤처기업이 국내 대기업 담당자를 디렉트로 만난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협회 도움으로 H사와 미팅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결과도 좋았구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문 업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최적화된 바이어 섭외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CIS Technology 이순영 차장
동남아 시장개척단, Venture Korea 2004GPP
일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가

올해부터 시작한 해외 사업, 두려움도 많았지만 협회와 각국 INKE 지부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협회를 통해 구축한 현지 Client을 대상으로 솔루션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긴밀한 협력이 성과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2005년에도 더욱 활발한 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협회의 활약상을 기대해 봅니다.



이쓰리넷 김민서 대리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를 통해 알게 된 협회 사업 2팀의 팀원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팀웍이 그렇게 잘 맞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친해져서 형님, 누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내년에는 상담 후 업체 방문도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을 기억하며 협회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pilogue

지난 한해 협회의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참가해주신 회원사 및 벤처기업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INKE 해외의장님들, 큐슈NBC를 포함해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협력 파트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대기업을 비롯해 우리 벤처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내외 기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벤처기업협회는 2005년에도 우리 벤처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 개발과 신뢰도가 높은 현지기업 발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4년 협회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7월

- ★ 전략세미나 2
 - 주제 : 북미진출-효과적인 전략과 전술
 - 참가규모 : 주한미국비즈니스 관련 기관 및 벤처기업 CEO 120여 명
- ★ 한국-제남시 사업조사단 파견
 - 제남시내 산업시설 및 환경 조사

○ 10월

- ★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GPP) & Triangle-Net
 - 행사내용 : 해외 주요 기업 및 국내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 참가 규모 : 해외 7개국 20개 기업 40여 명
국내 8개 대기업 벤처기업 80여 개사
- ★ INKE 프랑스 파리 지부 설립
- ★ INKE 중국 심양 지부 설립
- ★ INKE 사우디아라비아 젓다 지부 설립

○ 11월

- ★ 동경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 행사지역 : 동경
 - 상담바이어 : 2개 지역 50여 명
- ★ KOVA-큐슈 NBC 정기교류회 및 기업상담회
 - 행사지역 : 큐슈
 - 참가규모 : 국내 8개기업 20여 명
현지 기업인 70여 명
- ★ KOVA-코라보센터 (일본현지 마케팅업체) 업무협약
 - 일본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 12월

- ★ 한-시마네현 기업상담회 및 설명회
 - 행사지역 : 한국, 서울

글로벌지원센터 운영

- ★ 기간 : 연중사업
- ★ 해외 비즈니스 지원
- ★ 상담기업
 - 투자유치 10여 개, 해외 수출 30여 개, 기타 10여 개 등 50여 개 기업



디디오넷 김지훈 대리
일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가

해외 시장은 분명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현지 기업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일본 사업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엠씨테크 정윤호 대리
넷월드 인터럽 라스베가스 2004 전시회 참가

미국 현지 시장 동향을 실제로 보고 접하면서 향후 비즈니스 가능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한 전시회 였고 앞으로 유사 전시회 사업도 추진 부탁 드립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회를 주신 협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퓨처 이강현 대표,
INKE 동경 지부 의장
일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올해 일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한류열풍이기도 하지만 한국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보다 강력하게 일본 시장에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일 기업간의 지속인 사업 교류를 위해 협회의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며, 2005년도에도 멋진 사업으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PDS Global 홍병철 대표,
INKE 쿠알라룸푸르 지부 의장
동남아 시장개척단

세계는 넓고, 할 일도 많다는 말은 벤처기업에게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해외시장 도전은 벤처기업의 필연적인 숙명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출 국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엄격한 품질 그리고 현지화된 마케팅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좀더 큰 파이를 생각하면 기회는 분명 있을 것이다.



큐슈(九州) NBC 무라카미 차장
일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이전에 만남을 중요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비즈니스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점에서 양국의 비즈니스 관행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양국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